

버리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삶을 꿈꿔

도서출판 보리 윤구병 대표

내일 모레, 2월 17일(음 1월 26일)은 법정어른스님 열반 2주기다. 스님 열반 2주기를 앞두고, 도서출판 보리 대표 윤구병尹九炳 선생(70)을 세 차례 만났다. 선생을 만나는 내내,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미담 서정주 선생 시, 송창식 씨 노래 <푸르른 날은>이 귓가에 맴돌았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눈이 내리면 어이 하리아/봄이 또 오면 어이 하리아...

“제가 송광사에서 행자노릇을 잠깐 하다가 전생 업장이 두터워서 머리를 쥐지 못하고 말았어요. 제 가요. 좀 미련했어요. 집에다가 ‘나는 머리 깎고 중이 되겠으니 어렵겠지만 애 데리고 혼자 살다가 뜻 맞는 남자가 있으면 재가하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이죠. 저는 갑작같이 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지에 송광사 우체국 소인이 찍힌 줄은 몰랐어요.” 미옥한 나그네는 처음엔 전생 업장이라는 말씀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라고 알아들었다.

‘상좌로 쓸 만하다’ 던 윤 대표

<무소유> 추천사에 적기를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

나눔과 섬김 바탕은 무소유에”



윤구병 대표는 성철 스님의 서고를 보고 모두 공개를 하거나 아님 일찍 돌아가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해인사로 가려고 했어요. 성철 스님이 유식론 논쟁에서 이겨서 귀한 중국불교 책들을 얻어서 장경각에다 따로 모아두셨는데, 제게 보여주셨어요. 무식한 제가 보기에도 아주 귀한 책들이에요. 스님, 모두 공개를 하시지요. 복사도 하고 번역도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이 고개를 흔드세요. 그래서 제가 돌 중에 하나입니다. 스님이 마음을 고치시든가 일찍 돌아가시든가. 그랬더니 스님이 ‘예취!’ 하시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인연이 있어서 해인사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강원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참 맑음이 지배하는데, 갑자기 썩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길로 송광사로 갔어요. 워낙 촌놈이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굶주려왔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휴대하는 꼴을 못 봐요.”

선생이 초대면접장으로 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한글쓰기와 가로쓰기를 한 월간잡지 <뿌리 깊은 나무> 한창기 사장과 몇 사람이 함께 우체국 소인을 더듬어 찾아와 잡간 나가서 이야기나 하자며 차에다 태웠다. “아, 내 업장이 이만큼 두텁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이었어요. 제가 절집에 들어갔으면 절집으로서도 참 난감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절집 여러 군데를 불싸 지르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선생은 1977년 행자생활을 할 때 들었던, 공부하는 거문고 줄 고르듯이 너무 당겨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거문고 줄 다스리듯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신 법정 스님 말씀이 기억난다고 했다. 그때 법정 스님은 평생 상좌를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행자 생활하는 선생을 눈여겨보고는 “저만 하면 상좌로 쓸 만하다”고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뒷날, 다른 이에게 전해 들었다고 한다. “제가 워낙 자유로운 잡놈인데, 아마, 스님 얼굴에 퐁칠하는 짓을 하고 다니다가 상좌노릇을 못하고 일찌감치 달아나 버렸을지도 몰라요. 만나지 않은 게 다행이지요.”

(무소유) 개정판을 낼 때 법정 스님은 윤구병 선생 추천사를 받아오라고 말씀했다. 선생은 당신이 어찌 스님 같은 어른 책에 추천사를 쓰겠느냐며 당치도 않다고 필적 뒤었다. “행자생활을 하던 제가 어찌 쓸 수 있느냐고 사양했어요. 그래도 법정 스님이 꼭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꼼짝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다섯 번 만민가에 써드렸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건만 마치 어제 겪은 일 인양 몹시 송구스러워 한다.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나눔과 섬김의 바탕은 무소유에 있다. ‘나무 한 그루 베어 내어 아깝지 않은 책’으로 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들었다.” 윤구병 선생 추천사다.

선생은 1997년 8월 맑고 향기롭게 직지사 수련회에서 맑고 회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강연을 했다. “그때 끝내주는 제 출신 성분이야기를 털어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투전판에 기웃거리느라고 논밭, 집 다 팔아먹고, 열다섯 살 먹은 어머니하고 열 일곱 살 난 이모를 색주기에 팔아먹은 사람이예요. 어머니는 열아홉 살 때까지 색주개에서 지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열다섯 살에 장가를 드셨는데 누님 한 분만 있고 소생이 없으셨어요. 윤씨 집안 장남으로 제사상을 지킬 아들을 낳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스물아홉 살까지 딸 하나로 뒀다고 버티다가, 처녀장가를 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작은 아버지를 따라 술집에 갔다가 어머니에게 ‘나를 따라나서

겠느냐?’ 해서 두 분이 만나 아들만 아홉을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일병’, 둘째는 ‘이병’ 조로록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구병’ 이거든요. 하나가 더 태어났으면 뭐라고 이름을 붙이셨을지 상상이 안 가요. 아버지는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고 모두 서울로 데려왔어요. 저희가 말로 태어났으면 제주도로 끌고 가셨을 분이에요. 그때 6·25가 터졌어요. 열다섯 살이 넘는 형 여섯이 6·25때 죽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제가 열두 살 때 돌아가시고, 칠병이 형은 고문 후유증으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자살을 했어요. 지금은 오롯이 형제만 남아 있는데, 전생과 현생에서 인연이 이렇게 얽혀 있다고 고백하듯이 털어놓은 자리예요. 강연이라기보다는.” 사람은 귀하거나 천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저 하기 따라 귀하고 천해진다 는 ‘일갈’이다.

선생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 삶을 일구어,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열심히 강연을 하고 책도 썼다. 그런데 선생은 정작 당신이 쓴 책이 하루속히 읽히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푸름이(청소년)에게 보내는 편지 책 <꼭 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머리글에서 ‘이 책이 빨리 낡아서 새 시대 젊은이들에게 쓸모가 없어지고, 세상이 좋아져서 책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빛을 바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쓸데없는 글들을 많이 쓰라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너무 게을리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글들이 유효해요. 30년 40년 전에 쓴 글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해결해야 하거든요. 해결하려고 애써 실천을 했으면 그런 말들이 모두 허점스레기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악! 법정 스님이 절판하라는 말씀을 남기신 까닭이, 어서어서 몸 놀리고 손발 놀려서 하루빨리 당시 말씀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으로 만들라는 ‘우레’가 아니었을까.

도법 스님이 평화순례를 마치고 갔을 때, 선생은 도법 스님에게 삼배를 하라고 했다. “내가 짓궂잖아요. 툭툭 방바닥을 치면서 스님, 나한테 큰절 세 자리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해야 해?’ 그래서 대웅전에 나무로 깎은 부처한테 절할 때 왜 절을 해야 하느냐고 묻고 절 했어? 그냥 해. 그랬지요. 도법 스님

저마다 지닌 기술·재능 서로 나눠 있을 것만 남은 세상을 만들어야 삶을 마무리할 때 물고기 밥이 되어 떠나 흙을 지키고 살리는 지렁이가 되고파

이 순진하잖아요. 절을 하더라도 나는 빗지고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스님, 이제 내 절 받으시오. 아마, 내 절이 더 공손할 거요. 그러고는 내가 세 자리를 극진히 해 바쳤어요.” 법당 부처에게 하는 절이 연습이라면 필필 살아 쉬는 부처에게 하는 절은 실전이다. “살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저마다 지닌 기술이나 여러 가지 재능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해 등 돌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위기가 나타나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는 몸 놀리고 손발 놀려서 우리 살터를 더 건강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야 나아요.”

“수장, 수장해서 뭐가 했더니 재를 나무 돌레에다 뿌리는 것을 수장樹葬이라더군요. 저는 생선도 좋아하고 회도 잘 먹으니가 진짜 수장水葬이 되려나. 그래서 누군가한테 일었어. 나 죽으면 밭에다 무거운 돌 달아놓고 발가벗긴 채로 물속에 가라앉혀라. 그러면 언젠고 물고기들이 잔치를 벌이지 않겠나.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그걸 실천할 만큼 간행이 단단한 이가 돌레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을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반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앙,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다라니 福 지갑

평생부자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사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사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때쯤 되면 먼 산에 들어가서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수박에 앉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법정 스님도 살만큼 살다가 코끼리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흔적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싶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다. 입적하기 전에 제주도에 가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레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스님이 배를 타시겠다고 하면 못 타게 하자는 이야기를 나는 적이 있다. "이오덕 선생님

“책을 보리에서 퍼내라” 스님 말씀에 “우린 살만하니 더 어려운 곳으로” 사향 내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에 맞춰 국민건강 위한 <동의본초보감> 발간예정

어린이책을 기획하는 기획실로 출발하여 '나무 한 그루 배어낼 만한 가치 있는 책을 만들자'는 이념으로 참교육과 우리말, 참살을 다루는 도서출판 보리는 주시 98퍼센트가 세상을 밝히는 공익주식이다. 서로 종교가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우렁 산살림, 들살림, 갯살림을 나누는 느슨한 공동체 변산공동체학교가 는 2만3000제곱미터(7000평), 밭 2만6000제곱미터(8000평)터를 잡고 살림을 펴는데 오래도록 지원하고 재단법인을 만드는 돈을 냈다. 그리고 민족의학연구원(앞으로 '민의원'으로 적음) 재단법인 설립 자금도 대고, 허리띠 졸라매서 마련한 서교동 5층짜리 태복빌딩도 조건 없이 민의원에 내줬다. 그리고 민의원 운영자금으로 오년 남짓 다달이 2500만원씩 내놓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잡지 <작은 책>, 남녘과 북녘 어린이를 위한 <어깨동무>를 지원한다. 변산공동체학교는 예닐곱 가구와 마흔 명 남짓한 학생들이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는데, 학생들이 배우고 잠자고 먹는데 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민의원은, 음식과 약은 한 뿌리요 농사와 의료는 한 가지라는 이념으로 물·흙·곡식·사람을 아울러 온 목숨을 살리는 농부 마음으로, 한겨레 의료 역할을 모으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눔과 비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유기농가를 살리는 '문턱없는밥집'을 운영한다. 이 밥집에선 점심 때 비빔밥을 파는데 밥값을 전월부터 형편껏 받는다. 어려운 사람은 혈하게 먹고 넉넉한 이들은 더 많이 내지는 마음씀이다. 또 자원과 환경을 살리는 '기분좋은가게'도 운영한다. 이곳에선 네타이를 되살려 만든 치마나 원피스를 볼 수 있고, 청바지를 되살려 만든 '책싸개'를 만날 수 있다. '리폼'을 이곳에서는 순우리말로 '되살림'이라고 한다.

민의원에서 고루 먹고 병 고치고 주물러 병 고치며 약 안 쓰고 병 고치는 책 <약손문고>를 펴냈다. 그리고 한의학 전문가와 일반 사람들에게 건강을 살리는 지식과 슬기를 심어주려는 마음으로, <동의보감>에 실린 우리 땅에서 나오는 약재들을 모두 찾아 세밀화로 그리고, <본초강목>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의학 고전 원문과 번역을 함께 실은, 권당 900~1000쪽에 달하는 <동의본초보감> 시리즈 40권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도서출판 보리에서 4만 개가 넘는 낱말과 2400점이 넘는 세밀화를 넣은 <보리국어사전>을 출간하는데 7년 동안 20억이 들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 사업에 드는 돈은 600억이나 된단다. 2009년 7월, 우리나라 자료로는 일곱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오른 <동의보감>은 일본이나 중국, 유럽 사람들도 즐겨보는 책이다. 점도 사람이 살아야 생명력이 있듯이,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풀이 지닌 효능이 빛을 드러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온누리 사람 건강을 보듬는 터전이 되길 기대한다.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에 맞춰 두 권을 먼저 펴내려고 하는데, 민의원에서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어 보리에서만 들고야 한다. 그러나 보리도 출판계 불황으로 몹시 어려운 처지여서 살갑고 도타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린다. 민의원 누리집 주소는 www.kmf.org이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봉투바람

쉬운 일이나 좋은 기회가 있다 해도 힘을 들여야 한다는 말을 속담에서 '부두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한다. 세상에 쉬운 일이 많은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부단히 익히고 반복한 결과가 쉽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기회도 또한 그렇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참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에게 예정된 덕이다'고도 한다. 기회도 쉽지가 않다면 항상 험악거리기 일 수 있다. 속담이 주는 교훈은 실재를 강조한 가르침이다. <백유경(百諭經)>에서도 아는 것 보다 실천해 몸이 체득돼야 함을 강조한 가르침이 있다. 어떤 장자의 아들이 여러 장사꾼과 함께 보물을 캐러 바다로 들어갔다. 장자의 아들은 평소 바다에 들어가 배를 부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만일 바다에 들어가 물이 들거나 굶이 치거나 물결이 거센 곳에서는 어떻게 배를 잡고 어떻게 머물러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르겠다. 봉투는 불만이 많을 듯하다. 봉투의 속성은 지고지순 하다고 본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해 그리움이 사무칠 때 절절한 사연을 담아 우체통에 넣었던 편지봉투가 아니던가. 타향살이에 심신이 지쳐 고향산천을 그리며 그곳 친지에게 안부를 물어 소식을 전하던 편지봉투이기도 하다. 전선을 철통같이 지키는 병사들은 부모님께 위안의 사연을 담아 보내고, 부모님은 자식의 병영생활이 무탈하기를 기원하며 주고받았던 편지봉투이기도 하다. 그러한 봉투는 옛 모습은 찾을 길 없이 돈 봉투로 탈색이 되었다. 정치권에서 일기 시작한 돈 봉투 사연은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한 쪽은 주었다 하고 한 쪽은 받지 않았다고 욕신각신 하고 있다. 마침내 정치권의 돈 봉투는 거센 바람을 일으켜 입법부 수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

사무치는 그리움 전하던 편지봉투
정치·종교계 할 것 없이 변질
'초심으로 돌아가자' 구호 뒤엔
자신 돌아보는 자정 실천 따라야

에서 물러났다. 스포츠의 경우 공정한 경기에 때로 때 경기장에서 관중은 환호를 외친다. 이 세계에도 돈 봉투에 물들어 공정한 상실했고 말았다. 종교계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며칠 전 연일 뉴스로 다루어진 분사 주지 선거의 면면이 적나라하게 방영되는 것을 보고 누군든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이가 없었을까?

범어로 종교를 Siddhanta 라고 한다. Siddhanta는 '완성하다'는 뜻으로 진리를 깨달은 최고의 경지를 종(宗)으로 표현한다. anta는 '끝', '종결'이라는 뜻으로 진리를 말로 표현하여 가르치는 행위를 교(敎)라고 한다. 여기서 종교의 사명은 분명해진다. 진리를 깨달아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 사회에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철지난 구호에 그친다거나 공산의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알았으면 바로 실천하면 된다. 알기만 한 것이 얼마나 위협스러운 일인가를 <백유경>은 웅변하고 있다.

바람, 봄바람은 봄과 같이 올 때 대지에 환희가 넘치고 얼어붙은 땅에 만물이 소생하는 묘약이 될 수 있듯이 교단은 자정능력을 배가하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방이 될 때만이 종교의 기쁨과 뜻을 다 하리라고 본다.

"바다에 들어가는 방법을 나는 다 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의심 없이 믿었다. 바다 가운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장이 갑자기 병을 앓다 죽었다. 그래서 장자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서 일을 맡게 되었다. 물이 굶이져 돌며 급히 물살이 흐르는 곳에 배가 이르렀을 때 그는 외쳤다. "배를 이렇게 잡고 항해해야 한다." 그러나 배는 빙빙 돌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배안의 모든 사람들은 익사하고 말았다. "배를 이렇게 잡고 항해해야 한다." 그러나 배는 빙빙 돌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배안의 모든 사람들은 익사하고 말았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참선하는 법이나 들숨과 날숨을 세는 법이나 또는 부정관(不淨觀)을 조금 익혀 비록 그 자구(字句)는 외우지만 이치는 알지 못하고, 사실은 갖가지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잘 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망령되어 선정의 방법을 가르치니 앞의 사람을 미혹케 하고 어지럽혀 마음을 잃게 한다. <백유경>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세상에는 자신을 수양하는 공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머니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터득했음에도 쉽게 망각하고 마는 것은 무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생의 우치한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함량이 모자라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무명의 소(沼)는 넓고 깊기 마련이다. 요사이 웬 봉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지



은 사람만 아니라면 이 지구별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암수동체인 지렁이로 태어날 생각이예요. 멋지잖아요. 지렁이목도리.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이가 '그러면 우리 밭에 와서 살라' 그래요. 열심히 오물을 뒤집어엮을 테니까. 땅을 짓밟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이 되기보다는, 땅을 뒤집어 엮을 지렁이로 살리는 지렁이가 되고 싶단 말씀이다.

법정 스님이 류시화씨 편에 앞으로 당신 책을 도서출판 보리에서 펴내면 어떻겠느냐는 뜻을 던지시 알렸다. 선생은 그 문제를 공익위원 회의에 부쳤다. 보리 살림을 이끄는 공익위원이 모두 일곱 사람이 다. 중요한 경영 사안을 나눌 때도 격의 없이 우르르

결정을 내리기에, 공익위원 회의를 '우르르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때 이야기를 20년이 넘게 보리와 함께한 우르르 위원인 김용란, 유문숙 님에게 물어본다. "그때는 노동자들이 꾸미는 잡지(작은 책)을 만드는 일과 세밀화 사업, 그리고 이오덕 선생님 제자들이 아이들과 교육현장에서 실천해서 맺은 열매들을 모아 책으로 엮다보니, 다른데 눈 돌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힘을 쏟자고 마음을 모으고, 우린 살만하니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주면 좋겠다며 사양했어요." 세상을 향한 보리정신을 살피서 당신 책으로 엮인 인연이 보다 아름답게 나누어질 바랐던 스님 제안에 결맞은 곱다란 화답이다. 도움말을 해주 우르르 위원 두 사람은 집이 없다. "저희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일반노동자 월급보다 더 많이 가져가지 말자고 결의했어요.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명 의식이 있었지요." 법정 스님 말씀대로 맑은 가난이다.

Advertisement for 'Bing's (Gushinbing) · Shinbing · Toema Chondojae' featuring a film strip image of a monk and text describing a seminar on mental health and educatio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Hyeon-o, Director of Seonrip, and a Naver search prompt.